

영토분쟁 역사인식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일본인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만의 정보로 상대를 단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인 불안이 후에 자신 시야를 넓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안고 한국에 도착하고 경기도에 있는 영어마을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태도를 취하면 어쩌지... 빨리 이 연수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한국 학생들 덕분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일본 학생들을 보고 더듬거리며 일본어로 “오하요.,” “오하요고자이마스.”라고 말을 걸어준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움과 기쁜마음으로 가득 했고 앞으로의 연수가 기대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 학생들은 우리에게 일본어나 영어로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줬고, 가장 친했던 여학생은 “나는 일본의 이 캐릭터를 좋아해!”, “일본 음식은 이게 제일 맛있어!”, “이 일본 배우 아주 멋있어!”, “일본의 이 노래 굉장하 좋네!”하며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감동하고 한국인 모두가 다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한국 여학생에게서 “나는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너와 친해져서 인식이 바뀌었어. 너와 친해져서 좋았어.”란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저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한국에 와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교류를 해 보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정확히 알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서울 관광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서는 서울 도시에서 반일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의 영상이나 정보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울은 반일관련 간판을 내거는 가게나 사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인이란 걸 알면 싹싹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본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고 느껴 놀랐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했을 때 그 가게 점원이 “일본의 어디에서 왔는지?”라며 물으셨습니다. “이와테현이라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아~그래~ 그럼 지진의 피해는 괜찮았어?” 라며 대지진이 있었던 지방이었던 걸 알고 우리를 걱정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미디어만의 정보로 상대를 단정해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일본어가 한국인 사이에서 퍼져 있어 신기했습니다. 서울의 가게는 거의 일본어가 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 중에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어!”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수학여행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흥미가 깊어져 한국 자매학교 학생의 홈스테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가 집에 오기 며칠 전까지 우리부모님과 언니는 “반일감정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심으로 일본을 우리가족과 즐겨 줄까?”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홈스테이 중 일본어나 일본문화를 열심히 이해하려 하고 있어 저는 물론 우리 부모님도 감동하고 친구가 일본을 즐겁게 지내 아주 안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언니는 한국어는 이해 못하지만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TV를 보고 있을때 반일활동을 담은 뉴스가 나와 조금 어색한 분위기 속,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본을 안 싫어해. 나는 일본을 좋아해.” 이 말은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 보지 않으면 진짜 상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정보만으로 단정하고 거부하는게 아니라 먼저 상대를 알고자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번이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여행으로 생긴 한국 친구나 홈스테이 친구와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근황을 묻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류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마음 거리가 가까워지고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강한 유대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優秀賞 우수상>

내가 생각하는 한국, 한국인

神奈川県立横浜国際高等学校 2年 高橋 寿*

저는 요즘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치문제 때문이고, 국민끼리의 사이가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너무 나빴을 때 제 한국인 친구에게 "우리들의 나라끼리 사이가 더 나빠지면 우리는 친구가 아니게 되나요?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은데..."하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나라 간의 사이가 나빠져도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정치문제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매교 교류로 한국에 갔을 때에도 가족 여행으로 갔을 때에도 아주 착하고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친한 일본인과 한국인을 많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일본 간의 사이를 그냥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며,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나쁘지만 나쁘지 않다. 좋지만 좋지 않다."란 거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와 같이 어린 사람이 열심히 해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적극적으로 이문화를 접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을 그만두면 "싫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실제로 그 나라에 가거나 현지의 사람이나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배운 것이나 들었던 것만으로 "싫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한류드라마나 K-POP 을 사랑하는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어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달라도 서로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게 되면 한국과 일본끼리의 사이가 좋게 되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관심", "사랑", "음악", "교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문화, 음악, 스포츠, 음식...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에는 국경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어린 사람을 통해서 성인끼리나 국가끼리의 사이가 좋게 될 것을 바랍니다.

내가 느낀 한국사람

神奈川県立横浜国際高等学校 2年 武井 菜々*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학교의 자매교 교류로 한국의 학생들과 놀거나, 한국 여행에서 길거리의 사람들을 보거나 여러 면에서 한국 또는 한국인을 보고, 제가 제일 강하게 느낀 것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입니다.

내가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뒤에 서 있는 아주머니는 내가 아주머니의 가상의 탄력을 느낄 정도로 밀착해서 줄을 섰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가까움의 거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다니, 이제 이 사람과는 평생 만나지 않아도 될 사이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 등장인물이 어른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안에서의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화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더 친절하게 말하면 줄을 텐데.. 정말 무섭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니 일본에서도 가족한테는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친구도 가족처럼 생각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 줘도 그 관계는 나빠지지 않고, 더 친구와의 거리(관계)가 가까운 문화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자매학교 교류로 한국에 가서 한국 학생 2명과 일본학생 2명이 식사를 했을 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할 때, 피자나 불고기 같은 것을 먹을 때 외에는 보통 식당에서 한 사람당 메뉴 하나를 주문해서 각각 먹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햄버거나 파스타의 가게에 들어간 우리들은 5개의 다른 음식을 주문해서, 그것을 다 같이 나누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팔빙수 가게에 들어갔을 때에도 큰 팔빙수를 하나 시켜서 그것을 4명과 같이 먹었습니다. 원래부터 판매되는 팔빙수도 그러서인지 큰 패밀리사이즈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과 처음 만나서 요리를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거리(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했습니다. 한국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에도 능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정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도 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 한국의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싶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国学院久我山高等学校 2年 近藤 優*

저는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 한국유학생활을 통해서 일본에서만 있었다면 몰랐을 진짜 살아있는 한국문화를 많이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언제 밥 한 번 먹자”>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친구와 헤어질 때 대부분 누구라도 “문자 할게.”라고 말하면서 헤어집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을 해봐도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것에 대해 짜증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정말로 문자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인사말로 하는 것에게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이 말은 그 언제가 언제인지 서로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전혀 부담 없이 느끼는 인사말 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고 분석해봤습니다. 그 연구결과로 찾았던 키 워드는 “정”과“인맥”입니다.

한국 에서는 정과 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 에서 밥은 정(情)이었습니다.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에게 정(情)을 쌓는 것 입니다.한국말에 ‘한술밥을 먹다’는 식구 또는 가족의 의미입니다.이렇게 한국사람들 사이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또한 한국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이어짐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입니다.그러므로 저에게 말했던 “문자 할게”,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간접적으로 말하는 인사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나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자”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나라와 나라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앞으로 우리 일본과 한국이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와 정”을 쌓는다면 한일간에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앞으로 더욱 사이 좋게 지내요!! 화이팅!!

지금이야말로 양국의 동세대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것

横浜市立横浜商業高等学校 3年 山崎 美*

지금 일본과 한국은 영토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로 국가간에 있어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K-POP 이나 한류드라마는 인기가 많이 있지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코리안타운으로 불리고 있는 신오쿠보도 전성기때보다 손님이 격감하면서, 한때는 세상에서 화제가 됐던 "한류 붐"도 지금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신오쿠보에서는 요즘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 악화에 따라 재일한국인들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가 일어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일운동이 이전보다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미지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K-POP 이 좋아해서 스스로 되고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습관에 흥미를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자체를 더 알고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한국인 친구를 생겼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고등학생이고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그들과는 매일 카카오톡이라는 SNS 앱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전화도 가끔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이미지와 달리, 너무 상냥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할 때는 열심히 이해하려고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줍니다. 또, 제가 모르는 단어나 문법을 질문 하면, 예문을 섞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저에게 최고의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은 조금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우호적이고 한국인, 일본인에 관계없이 대해줍니다. 또 요즘 일본에서 큰 지진이나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관촬냐고 걱정해주고,그 때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야말로 양국의 동세대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미디어나 세상의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제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나볼 기회를 더 만들어 보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 주최로 문화나 스포츠교류사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서로의 빙산의 일각밖에 보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짚어지는 사람들은 우리들이니까, 미래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나라라는 감정 따위 던져 버리고 한 번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습니까? 저는 한국인을 만나고 나서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싶습니다. 우리게는 언어나 문화 등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

京都国際高等学校 2年 田村 有*

지금 한국과 일본은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만큼 제가 동세대 일본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역사가 왜곡되어 있거나 일본의 과거의 잘못들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과서로 수업을 들으면 일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뿐만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요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사회 선생님들이 함께한 역사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의 이점은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친 역사를 기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가 아닌 이러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공동 제작한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바로 알고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함으로써 조금 시간이 걸릴 지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아는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일이 없는,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과 유대인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반성한 뒤 유대인에게 정식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완전히 독일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정식으로 사죄를 한 덕분에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본이 독일처럼 정식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가 보는 일본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왜곡된 역사가 아닌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 과거에 벌인 일을 반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모두 미래로 나아가되 과거의 일을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양국의 동세대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것

福島工業高等専門学校 3年 舘野 *

저는 올해 3월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일한교류에 대한 직물을 써서 최우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박물관에도 가고 비빔밥도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직문 대회는 일본과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국인 수상사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즐거웠던 일은 서로의 나라에 흥미를 기져서 양국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소등학생이었을 때 한국 음악에 흥미를 가졌던 이후로, 한국어나 한국문화 그리고 일한역사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어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한국문화나 특징, 또한 일한 간의 어두운 역사 등 모르던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서로 얼굴도 비슷하고 유교는 뿌리를 박힌 나라라는 것 같이 비슷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예전은 이웃나라인 하국사람은 일본사람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공부하다보니 일본과 한국이 다른 문화나 풍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작문대회에서 만난 학생들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동을 엄격하게만 평가하고 학국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옛날부터 일본인들이 한국을 가까운 나라에 있는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친해지는 필요가 없고 새삼스럽게 알아보는 필요도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발자취가 달라서 일본하고 다른 문화나 기질을 가지는 것은 단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사람은 그냥 가까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들의 모른 채 일본문화와 습관, 성격을 한국사람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한은 비슷한 측면이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와 무 조건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한국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해 주세요. 꼭 일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더 좋은 우호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착각만 해 왔던 관계에서부터 정말로 사이좋은 우호관계로 바뀌기 위해 우리 모두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佳作 가작>

내가 느낀 한국, 한국인

玉川聖学院高等部 2年 小濱 莉*

지난 3월 저는 3박 4일의 홈스테이를 하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국에 있는 학교와 한일자매교로서 체결되어 있어, 160명 있는 고등학교 2학년학생들 중에 매년마다 스스로 원하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원래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또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홈스테이를 원한 이유는 그것 뿐 만 아니라 독학해서 배워왔던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엔 그 전에도 4번 간 적이 있었고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홈스테이라는게 생애 처음인 저에게 있어선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국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저에게 매우 긴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친구일까 어떤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 상상을 하면서 긴장감은 잊고 오히려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3시간 뒤엔 저의긴장은 필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부터 45분 정도 걸려 도착한 그 학교는 들어가자마자 11명인 우리를 뜨겁게 환영해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4일동안 신세를 진 친구를 만났던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한국어로 인사를 전하는 것에 필사적이었습니다.

저의 단짝친구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었지만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민경이는 4일동안 매일매일 저를 위해 정성을 담은 선물을 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K-POP 가수의 CD를 사주거나 커피양말을 주거나 손편지를 써주거나... 오기전에 느끼고 있던 긴장이 얼마나 괜한 것이었는지 다시한 번 깨달았습니다. 매일 민경이는 저를 재밌는 곳으로 데려가줬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을 가고 사진을 찍고 간식을 먹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이 기다립니다. 제가 처음에 집을 찾아갔을 땐 직접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케익의 맛,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저녁엔 드라마를 보면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눴고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가르쳐주셨고, 저도 역시 일본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영향의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일본을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에감동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많은 추억이 쌓인 민경이와 반의 친구들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했습니다. 저는 그 때 재회를 확신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꼭 만나야 한다고.

4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겪은 일들은 정말로 귀하고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한국사람들은 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일본인인 저인데에도 불구하고 환영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정이란 한자가 생각날정도로정이 깊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하고 평생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생긴 인연과 추억은 제 인생의 소중한 보물입니다.